

우사 도리이

신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도리이는 세속적인 세상과 신성한 공간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일본 전국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리이가 존재하는데 우사 신궁의 우사 도리이는 특히 독특한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으로는 최상부 옆부분에 놓인 가로대가 크게 휘어져 있는 것, 그리고 2개의 기둥 맨 꼭대기에 기둥을 둘러싸는 형태로 검은 테두리가 둘러져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사 도리이에는 2개의 수평보 사이에 가쿠즈카라고 불리는 신사의 이름을 내건 현판도 없습니다. 도리이에 칠해진 밝은 주홍색은 사악함과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사 신궁 경내에 있는 도리이는 모두 이러한 양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조구의 도리이

조구(上宮, 위쪽 신사)로 이어지는 돌계단 꼭대기에 있는 도리이는 우사 도리이 양식의 기원으로 여겨집니다. ‘이치노 도리이(첫 번째 도리이)’라고 불리는 이 도리이는 우사 신궁의 주제신인 하치만 신의 이름을 따서 ‘하치만 도리이’라고도 불립니다.

조구 앞 이곳에 언제부터 도리이가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30년에 작성된 문헌에도 이 도리이는 등장합니다. 현재의 도리이가 세워진 연도도 불분명하지만, 1863년에 수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150년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조구의 도리이는 오이타현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토리이(큰 도리이)

신묘 다리를 건너 신성한 땅에 들어서면 우사 신궁의 큰 참배길에 오토리이(큰 도리이)라 불리는 거대한 도리이가 나타납니다. 11.1m의 높이를 자랑하는 이 도리이는 신사 내에서도 가장 큰 도리이입니다.

원래의 오토리이는 1111년에 세워졌습니다. 17세기에 영주가 교체되고 새로운 영주가 우사 신궁에 자금을 제공한 덕분에 오토리이를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1798년 낡아진 오토리이는 하치만 신이 처음으로 지상에 내려왔다고 알려진 신성한 산 오모토산의 삼나무로 만든 새로운 오토리이로 교체되었습니다. 과거의 도리이는 현판이 있었고 기둥 주변에 특징적인 검은 테두리가 없었기 때문에 ‘우사 도리이’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태풍으로 이전의 오토리이가 파괴된 후, 1937년에 우사 도리이 특유의 양식으로 만든 현재의 콘크리트제 오토리이가 세워졌습니다.